

닭고기 자조금 관리위원회 www.ichicken.or.kr

HOT ISSUE

지구 온난화와 양계장 관리

올여름 찜통무더위 장기화 우려, 각 농가별 맞춤형 냉방관리 필요



닭은 몸 전체가 깃털로 덮여있고 땀샘이 덜 발달되어 고온에 대한 적응능력이 떨어진다

지구 온난화 가속화 된다

지구 온난화가 지속되면서 여름 날씨가 예전보다 일찍 찾아온 느낌이다. 기상관측 이래 지구표면의 온도가 1℃ 이상 상승한 것으로 다양한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으며, 북극과 남극의 빙산이 사라지고 있고, 50여년 동안 에베레스트 산의 빙하가 13%나 녹아내리는 등 온난화에 따른 심각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과학자들은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온도가 상승해 2080년에는 주변 식물의 57%, 동물의 34%가 멸종하게 될 것이라는 발표를 해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장기간의 가뭄은 물론 폭우가 내리는가 하면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등 기상이변으로 인해 농장관리에 이상이 걸리기도 했다.

외부온도 30℃되면 닭의 면역력 급감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6~8월)은 평년보다 무더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초여름 더위가 일찍 찾아오고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올해 여름에는 고온스트레스에 약한 닭의 사양관리에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닭은 몸 전체가 깃털로 덮여있고 땀샘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열을 발산하지 못하므로 고온환경에 대한 적응능력이 떨어진다. 닭의 정상적인 체온은 41℃이며, 환경온도가 35℃를 넘으면 고온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된다. 실제로 닭의 사육적온은 15~25℃이며 온도가 상승하면 입을 벌려 헐떡거리거나 날개를 퍼덕임으로써 심장박동수를 높이고 피부로 통하는 혈액량을 증가시켜서 열을 발산한다. 하지만 30℃이상 고온이 계속되면 발산하는 열량보다 누적되는 열이 많아져서 체온이 상승하고 음수량이 증가하는 반면, 사료섭취량이 감소한다. 이로 인해 닭의 체내 영양과 호르몬의 균형이 깨져 비타민 합성능력 저하, 탈수로 인한 혈액 내 전해질의 불균형 등이 생겨 병에 대한 저항능력 감퇴, 증체량 감소, 폐사 등이 일어난다.

혹서기 대비한 다양한 육계 사양관리

농가에서 여름철 가장 쉽게 계사에 이

용할 수 있는 방법은 터널식 환기를 하여 계사 내 풍속을 높게 하여 체감온도를 낮추는 것이다. 풍속이 초속 2.53m인 경우 체감온도를 5.6℃까지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로는 단열이 부족한 계사의 경우 지붕 위에 파이프나 스프링쿨러를 설치하여 지하수를 뿌려주면 계사 지붕의 온도를 낮출 수 있으며, 계사 주위로 떨어진 물이 증발하는 과정에서 주위의 열을 빼앗아 주위 온도도 낮춰주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보온덮개의 경우는 물을 흡수하면서 오히려 열을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 안개분무장치를 이용한 방식도 있다. 계사 내에 물을 분무하면 물이 증발되는 과정에서 주위의 열을 빼앗아 온도가 내려가게 되며, 물입자가 적을수록 기화가 잘 되어 냉방효과가 향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 안개분무장치를 이용하면 상대습도가 10% 정도 상승하므로, 계사내부가 너무 습하거나 흐린 날에는 닭들이 오히려 고온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개분무 작동을 중단해야 한다.

네 번째로 쿨링패드를 이용해 열을 식히는 방법도 있다. 단 쿨링패드도 무창 계사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적절히 이

용할 경우 계사내 온도를 3~4도까지 낮출 수 있어 더운 외국지역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지열을 이용해 계사의 온도를 낮출 수 있다. 땅속 깊은 곳은 계절이 변해도 온도가 일정하므로 이러한 토양의 열을 이용해 혹서기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것이다.

농장에 맞는 대응책 마련을

농가들은 농장 실정에 맞는 철저한 혹서대비가 필요하다. 병아리를 입식했을 때 1주일간 고온에서 육성하면 육성후기의 고온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스트레스 제제 등을 이용해 닭을 강하게 키우는 사양관리 비법 등 환경적인 면을 차치하더라도 다양한 혹서대책이 있을 것이다. 올여름 극심한 더위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각 농가에서는 위와 같은 혹서기 대비책 중에서 적절한 방법을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이를 통해 닭의 고온스트레스 줄이고 병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키며 증체량을 향상시켜, 농가에서는 경제적인 사양관리를 하고 농가의 소득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대한양계협회 정책기획부장 김동진

닭고기 자조금 거출기준 및 납부절차

농가출하
육계, 삼계, 토종닭, 육용종계 도계장으로 출하

거출금 징수 위탁
수납기관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작업장 (수납기관은 농가의 자조금 납부 의사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 법 제 19조제2항)

거출금 징수
수납기관 : (도계되는 전수에 대하여 도계장에 의무 징수)

농가직접납부
도계수를 기준으로 농가가 직접 자조금 납부, 자조금 송금 후 관리위원회로 연락 필수

거출금 송금
수납기관 또는 농가가 직접 관리위원회에 납부 (수납 익월 20일 까지)

고지서 발송
관리위원회에서 수납기관 (도계장)

[거출시작일] 2009년 6월 1일 도계물량부터
[수납기관] 전국 도계장 대표자
[거출금액] 육계 5원, 삼계 3원, 토종닭 10원, 육용종계 30원(수당)
[농가직접납부 계좌번호] 농협 301-0017-6070-01 (예금주 : 닭고기 자조금 관리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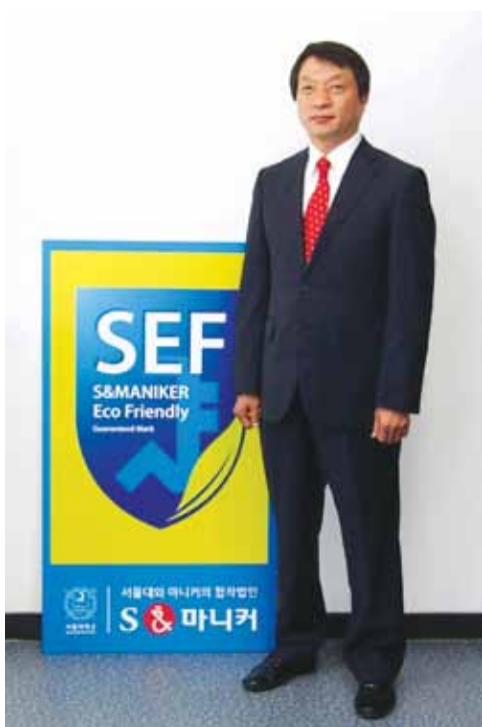
|(주)마니커 신계돈 대표이사 |

- ▲ 1967년생
- ▲ 영남대학교 축산학과 졸업
- ▲ 천하제일 사료, 올품 근무
- ▲ 농업회사법인 계명 대표이사

신계돈 대표이사는 지난 3월 28일 (주)마니커의 지원철 대표이사와의 함께 각자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그동안 천하제일사료, 올품 등에서 경력을 쌓은 신계돈 대표이사는 지난해 12월 15일 (주)마니커에 합류해 총괄상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으며, 이번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다.

신계돈 대표는 현재 (주)마니커의 사육·영업·생산·부화 등 회사에서 영위하는 경영전반에 걸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주)마니커의 수익사업 개선을 위해 각 분야 별로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사업실행에 대한 사항들을 지휘하며, (주)마니커의 업무프로세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임직원 간 효율적인 정보교류를 위해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추구하지만,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철저함과 정확성을 중요시하는 (주)마니커 신계돈 대표이사를 만났다.



(주)마니커는 서울대학교와 함께 기존의 친환경인증을 보완하여 자체적으로 SEF 인증농장 생산이력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인터뷰

(주)마니커만의 '차별화'되고 품질면에서도 뛰어난 제품생산에 주력할 것

육계 표준계약서는 업계 표준 마련 및 분쟁해결, 상호안정 위해 필수 웰빙시대 및 소비수준 향상된 소비자 위한 적극적인 소비홍보 필요

■ (주)마니커는 HACCP 관리 등 품질경영에 철저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마니커는 소비자에게 철저한 위생관리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품질경영'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에게는 정직한 제품을 제공하고 경쟁사와는 정당당한 경쟁을 하며 계약농가와는 공정한 거래로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정도경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마니커는 HACCP 운용수준에 적합한 철저한 위생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정기적으로 종업원의 위생 및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지속적인 시설보완과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제품생산 전반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사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철저한 품질경영을 통해, 지난 2011년 동두천 공장이 2년 연속 HACCP 전국 최우수도계장으로 선정되었고, 작년에는 (주)마니커의 3개 도계장에서 전국 도축장 HACCP 운용평가 상등급을 획득했습니다.

■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각 단체와 함께 육계 표준 계약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열사와 계약농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서가 어떻게 완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진행 중인 계약농가와 계열사 간의 육계 표준 계약서는 업계의 표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육계 표준계약서는 육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계약농가와 계열사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고, 상호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계약농가와 계열사의 여건과 상황에 따른 특이성은 인정되어야 합니다.

계열화사업은 구조적인 안정이 있어야 합니다. 수입 육 확대, 소비감소, 공급과잉 등 시장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적인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계열화사업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계약농가와 계열사 모두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맥락에서 표준계약서가 완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농가, 계열사, 정부 등 관련된 모두가 미래를 내다보고 새롭게 변화하여, 상호 신뢰하고 상생하는 육계산업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닭고기자조금 거출을 향상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또한 닭고기자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어떤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까요?

농가들의 닭고기자조금을 계열사 도계장에서 직접 거출하는 방법이 자조금 확대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가장 완성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인 위반이 없다면 도계장 자조금 거출에 대한 내용을 상기 표준계약서에 삽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닭고기자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국내산 닭고기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소비량 증대에 기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웰빙(Well-being)시대에 접어든 만큼, 1고3저(고단백, 저칼로리, 저지방, 저콜레스테롤)의 건강식품인 닭고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유통점을 가봐도 요즘 주부들은 정말 '깐깐'하게 닭고기 제품을 고르고 있습니다. 생산일자는 물론이고, 어느 농장에서 키웠는지, 유통기한은 언제인지, 심지어는 무항생제인지도 꼼꼼히 체크합니다. 그만큼 닭고기자조금 사업도 이런 꼼꼼하고 건강을 챙기는 소비자들을 위해, 닭고기 제품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적극적인 소비홍보 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소비홍보 활동을 통한 소비량 증대는 생산량과 사육량의 증대를 가져오며 이를 통해 계약농가와 계열사가 더욱 성장하여 상생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처럼 닭고기자조금 사업은 기본적으로 국내산 닭고기를 직접 소비자의 소비와 연결할 수 있는 소비홍보활동이 필요하며, 소비감소와 공급과잉, 가격하락과 같은 업계의 불황 시에 수급조절을 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 대표이사님의 비전과 향후 (주)마니커에 대한 운영계획이 궁금합니다.

잠재적인 고객과 제품을 발굴해내는 블루오션 같은 '차별화'된 제품과 시장을 만들어 내고 싶습니다. 원가 절감뿐만 아니라, 우수한 제품 품질을 토대로 소비자에게도 제 값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과 (주)마니커만의 경쟁력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작더라도 한 단계씩 성장하며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양질의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수익구조 개선을 통해 수익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운영을 할 것이며, 육계산업이나 회사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정하고 보완하여, 업계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업계에서 가장 젊은 조직을 맡은 만큼, 임직원들에게 신명나면서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업으로 키워나갈 것입니다.

HOT ISSUE

가축재해보험, 가입자 및 수익자는 농가로만 가능토록 제한

계열사의 원자재 질권담보 설정을 이용한 보험료 수령 사라질 전망

앞으로는 계열화 사업자(이하 계열사)가 가축재해보험의 가입자 및 보험금 수익자를 계열사로 지정하는 경우가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2013년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을 통해, 가축재해보험을 계열사가 계약자나 소유자(피보험자)로 가입하거나, 혹은 계열 농가가 계약자 및 소유자(피보험자)로 가입하였으나 사고발생 시 계열사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계약의 경우 국고 지원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제부터는 모든 가축재해보험은 계약농가(혹은 개인농가)가 계약자 및 소유자로 가입한 후, 사고가 발생하면 소

유자인 농가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계열사가 농가 명의로 보험을 들어 계열사가 사고발생 시에는 보험금 수익자를 계열사가 되도록 지정해 보험금을 임의처분했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에 계열사는 계약 농가가 원자재(병아리와 사료 등)를 회사로부터 외상으로 매입하는 것에 대해, 원자재의 소유권이 각 농가에 있다며 계열사에서는 원자재에 대한 질권 담보를 설정해 왔다. 가축재해보험은 보험의 대상이 원자재(가축)에 대한 것이므로, 보험사에서는 이것에 대한 보험료 수령자를 질권

담보된 계열사로 정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에 대한 지적이 농가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자,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계열사들이 가축재해보험의 가입자 및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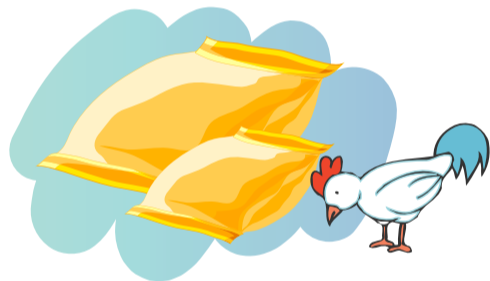
따라서 앞으로는 계열사가 가입자인 경우와 계열사가 소속 농가를 대리하여 소속 농가의 명의로 가입하는 경우, 계열사가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되는 경우는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가축재해보험은 농가가 자부담하는 것은 50%이며, 국고보조 50%로 총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가축재해보험

보장범위는 주계약이 풍·수해, 설해, 화재에 의한 손해이며,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의 95%까지 보상된다. 특약으로는 전기장치 고장에 따른 가축손해, 폭염에 의한 가축 피해, 사고 발생 시 동물 사체 등 잔존물 처리비용, 협의평가로 보험 가입한 금액을 시가와 관계없이 가입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평가하는 협정보험가액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적절한 제도개선으로 가축재해보험이 농가에게 천재지변에 대비한 적절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만큼, 안정적인 양계 사양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가축재해보험 가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단체장, 축산업 불황타개를 위한 사료가격 인하 요청



축산단체장들 사료협회 방문...1월 기준으로 사료가격을 낮춰줄 것을 촉구

(사)대한양계협회 이준동 회장을 비롯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창호) 소속 단체장들은 지난 5월 20일 한국사료 협회를 방문, 축산업의 어려움과 함께

사료가격 인하를 요청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준동 회장은 "양계인을 비롯한 축산인들이 불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언하고 "사료업계에서 회사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함께 어려움을 인지하여 사료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인하해 달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남조 사료협회 회장은 "축산인들의 애절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하고 "내릴 요인이 있으면 사료회사측에 충분히 설득하여 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최근 일부 회사에서 가

격인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지켜 봐달라"고 답변하였다.

축산업계는 이미 가격을 인상한 사료업체들에게 1월 기준으로 사료가격을 낮춰줄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일부 업체들로부터 사료가격 인하조치를 전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 답변을 주지 않은 회사들을 대상으로 보다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가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사료업계에서는 현재 국제곡물가가 하향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금 생산하고 있는 배합사

료는 4~5개월전 곡물가가 높을 때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경영 부담을 안고 있으며,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마저 1천1백원대를 상회하고 있어 이중부담을 안고 있는 만큼 가격 인상요인은 현실적으로 힘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미 1조5천억원의 사료지원자금 지원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사료업계도 추가로 가격인하 계획을 밝히고 있어 향후 업계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자조금관리위·토종닭협회, 소비촉진 일환으로 '우리축산 상생나눔' 행사 참여



닭고기자조금관리위와 토종닭협회가 시식코너를 마련해, 소비자들에게 국내산닭고기와 토종닭의 영양학적 우수성과 풍부한 맛을 소개했다

국내산닭고기의 우수한 맛과 영양을 소개하는 시식코너 마련해 대성황 이뤄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와 (사)한국토종닭협회, 농협중앙회는 지난 5월 14일 (화)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산닭고기 소비

촉진을 위한 '위풍당당 우리 축산 상생나눔 한마당'에 참여해 국내산 닭고기 및 토종닭을 홍보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의 주관으로 나눔축산운동본부, 농협중앙회, 축산관련 협회와 축산관련 관리위원회가 함께 진행하였다.

행사에 참여한 (사)대한양계협회 이준동 회장, (사)한국계육협회 정병학 회

장, (사)한국토종닭협회 김연수 회장 등 내빈들의 '소비자의 가치있는 선택으로 같이 가자 우리 축산!' 슬로건 제창을 시작으로, 청계광장에서 오간수교에 이르는 5.8km를 왕복하는 '우리축산 상생의 길 걷기대회'가 진행되었으며, '축산물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리는 전시회와 각 축산관련 단체의 시식회가 진행되었다.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와 (사)한국토종닭협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 '토종닭훈제' 시식코너를 마련해 우리 입맛에 맞는 토종닭의 쫄깃한 맛과 1고3저(고단백, 저콜레스테롤, 저지방, 저칼로리)의 풍부한 영양을 전했다. 우리맛닭, 토종삼계탕, 토종닭볶

음탕, 닭곰탕, 닭백숙 등 다양한 제품을 전시하고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사)한국토종닭협회 김연수 회장은 "소비자들과 가까운 곳에서 우리 종자 토종닭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어 더없이 좋은 기회였다"며, "향후 적극적인 방역관리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토종닭과 국내산닭고기 제품개발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국내산닭고기에 대한 올바른 진실을 알리고 다양한 국내산닭고기 제품을 홍보해 국내산닭고기에 대한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국내 양계농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길 기대해 본다.

HOT ISSUE

농림부, 육계 표준계약서에 대한 의견수렴 및 향후 계획 논의

각 단체별 다양한 의견 제시돼...계열사와 농가가 상생하는 표준계약서 기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육계 단체 관계자와 함께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육계(토종 닭·오리) 표준계약서'의 세부항목에 대한 의견조율을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2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축산 농가 및 계열화 사업자(이하 계열사)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육자재의 품질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할 계획이다.

지난 5월 7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시한 표준계약서의 주요 사항에 대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사)대한양계협회, (사)한국계육협회, (사)한국토종닭협회 관계자가 모여 '육계(토종닭·오리) 표

준계약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각 단체별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대한양계협회에서는 육계 출하 시 계약 농가의 사육 불량으로 등의 품이 발생할 경우, 계열사는 등외품을 통보하기만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등외품을 계열사가 임의로 처분(판매)할 수 있으므로, 계열사는 통보 후 계약 농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사)한국계육협회에서는 계사의 사육 시설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계열화 법과 축산법 또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수준을 근거로 제시했으나 보다 구체적인 사육시설 기준을 요구했다. 또한 농림축

산식품부가 규정한 '계열사가 계약 농가에게 65주를 초과한 종계에서 생산된 병아리는 공급해서는 안 된다'는 안에 대해서는, 생산주령을 제한하는 것은 병아리 생산수량 맞추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과도한 종계보유는 원가상승 및 공급과잉을 초래할 수 있다며 '65주'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사)한국토종닭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방역 및 위생관리 항목 중 계약농가가 사용한 항균잔류물질이 검출될 경우 계약 농가가 책임을 진다는 조항에 대해, 허용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어도 농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며 '허용기준치 이상 검출될 경우'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출하 마릿수 상차의 경우, 오토캐칭과 모듈상

차 시에는 출하마릿수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오토캐칭과 모듈상차 시 도계마릿수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5월 20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각 육계 단체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각 단체의 '육계 표준계약서'에 대한 의견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의견조율을 위한 향후계획 및 일정을 논의했다.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해서 육계 표준계약서를 계속적으로 수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양계산업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하고 필수적인 의견이 제시되고 검토되어, 계열사와 농가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표준계약서가 완성되길 희망해 본다.

북한 평양 인근서 고병원성 AI 발생

농림부, 북한 접경지인 파주 탄현지구 방역강화조치 실시

북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국내 양계농가의 보다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5월 13일 북한과 중국에서 각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발생하였음을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북한은 평양 인근의 두단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발생하여 오리 16만4

천 마리를 살처분했으며, 방사하여 기르는 오리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철새와 접촉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중국은 티베트지구 경림주의 가금 35마리가 감염되어 폐사함에 따라 인근의 가금(닭, 거위 등) 372마리를 살처분했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북한 접경지역인 파주 탄현지구의 철새도래지 및 임진강 일대 등 철새도래지 예찰 및 지자체에 대한 방역 강화조치를 지시했으며, 중국의 상황에 대해서도 신종 조류인플루엔자(H5N1형) 발생 이후에 강화된 검역·방역조치를 유지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AI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을 불식시키는데 주력했다.

지난 5월 16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지난 4월 28일 중국 AI 발생 지역(저장성)에서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된 저어새 무리의 AI 검사결과가 음성이라고 밝혔다.

국내 보건당국과 양계농가들의 철저한 방역관리로, 올해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주변국인 북한과 중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도 보다 철저하고 강화된 AI 방역관리로 AI 청정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체리부로, 획기적 「My 농장」 제도 마련

(주)체리부로(김인식 회장)는 회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사육농가와 상호이해와 유대감 형성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 16일부터 (주)체리부로가 전 관리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My 농장」제도가 그것이다.

「My 농장」제도는 (주)체리부로와 협력관계에 있는 사육농가에 관리직원들이 주기적으로 방문하도록 하여, 농가들의 부족한 일손을 돕고 현장 경험을 통해 회사와 농가 간에 서로 이해하고 배려함으로써 유대감을 높이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한 제도이다.

(주)체리부로 중앙연구소 박지현 사원은 "「My 농장」에 참여하여 작업 미숙으로 혹시 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사육본부 직원의 통제에 따라 일이 수월하게 진행되었고, 정성껏 새참을 마련해 주신 농가 사장님과의 대화를 통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My 농장」에 참여한 (주)체리부로 관리직원들



지금 해외에선

일본 협상후 담고기 생산액 990억엔 (9,900억원) 감소 예상

우리나라가 한·미 FTA, 한·EU FTA 타결에 이어 한·중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까운 일본에서는 TPP(환태평양자유무역협정)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협상이 중요한 이유는 경제 대국인 미국과 일본이 경제주도권을 쥐고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국내수출입 등 경기에도 상당부분 영

TPP(환태평양자유무역협정) 동향 주목

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본 내 농가들은 TPP협상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에서 금년 내 협상완료를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며, 협상이 완료된 후 관세가 철폐되면 농림수산물 생산액이 약 3조엔(30조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담고기의 경우는 990억엔(9,900억원)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은 관세철폐로 인한 수입 산

물 상승이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TPP발족은 태평양 연안국인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군데서 시작되면서 큰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2010년 미국이 TPP협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PTA)보다 더 영향력 있는 기구가 되고 있으며, 최근 일본의 참여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현재 TPP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총 11개국에 이른다.

지부탐방 아산육계지부, 지부회원간 멘티-멘토 역할로 시너지 효과

신규 회원농가 증대를 위한 노력 지속할 것



① 김찬우 지부장
③ 최윤호 사무국장



② 이일용 고문 (전 지부장)



아산육계지부(지부장 김찬우)는 지난 5월 24일 아산육계지부 회의실에서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당초 닭고기자조금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김찬우 지부장이 갑작스런 농장 일로 월례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면서 간단한 지부운영소식을 전하고 회원농가간 답소를 나누는 자리가 이어졌다. 총 37명의 회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아산육계지부는 원로 회원들이 많고, 올해 들어 신규로 들어온 회원농가가 한자리에 모여 현안에 대한 도움을 주며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김찬우 지부장의 부재로 현 고문이자 전 아산육계지부장을 지낸 이일용 고문의 주제 하에 아산육계지부 월례회의가 진행되었다. 2014년 지자체에서 지원될 사업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회원농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의견을 개진하는 등 회원농가들의 열의가 대단했다.

월례회를 마치자 삼삼오오 모인 회원들은 농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점에 대해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답소에 빠졌다. 최근 한 회원농가에서 주변 민원으로 인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벌금이 떨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다들 자기일인 것처럼 진지하게 조언을 주고받고 있었다. 올해 들어 아산육

계지부에서만 벌써 두 번째라고 한다.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장주변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고 이일용 고문은 전한다. 회원들간에 주변 사례를 들어가며 조언을 해주고 있었지만, 강화되고 있는 축사시설에 대한 규제로 걱정이 앞서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지부사무실에는 지부 회원간에 유대관계를 높이기 위해 회원현황판을 만들어 신규 회원도 보기 쉽게 관리하고 있었다. 아산육계지부 최윤호 사무국장은 “처음오시는 신규 회원님이 기존 회원과 좀 더 쉽게 친해질 수 있도록 회원현황판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농장의 위치별로 회원명과 농장명, 사진을 붙여놓아 회원 간에 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아산지역 육

계농가 회원을 늘리기 위해 올해 들어 더욱 적극적으로 아산지역 육계농가에 지부홍보를 하고 있다. 더욱 많은 신규농가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며 최윤호 사무국장은 밝게 웃었다. 안타깝게도 김찬우 지부장과 인터뷰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화목한 분위기로 맞아주시는 아산육계지부 회원님들과 그 핏계로 다음번에 한 번 더 인터뷰를 오라고 활짝 웃으시는 이일용 고문에 기분 좋게 지부탐방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사)대한양계협회 정책기획부 대리 이남희



아산육계지부 월례회의



육계질병가이드 / IB 발생 동향과 관리방법

Q. 신장형 IB가 발생한 농장입니다. IB는 방어가 어렵다고 하는데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A. IB는 닭에서 발생하고 있고 전파력이 매우 높은 호흡기 질병입니다. 마이코플라즈마 감염증과 더불어 해결하기 쉽지 않은 질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 호흡기형 IB가 보고된 이후, 90년대에는 신장형 IB가 발생되어 지금까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IB는 혈청형이 다양하고 변이가 잘 일어나며 교차면역성도 낮아 방어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 발생하는 신장형 IB의 경우 육계에서는 3주령 부근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이전보다 호흡기 증상은 심해지고, 신장중대나 요산침착, 설사는 약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대장균 등 2차감염으로 인한 폐사가 많이 발생하는 등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발생합니다. 증체불량과 사료효율 저하로 인해 출하성적이 나빠지는데 특히, 출하가 임박한 농장에서 그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신장형 IB가 발생하게 되면 신장이 중대하고, 이로 인해 심한 설사 및 요산침착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때는 탈수에 의한 폐사를 막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

니다. 2차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항생제를 투여할 경우가 있는데 최근엔 항생제 잔류검사 등 식육의 안전정책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농장을 관리하는 수의사와 긴밀하게 상의하여 투여하여야 합니다. 필드에선 호흡기 증상과 폐사 발생 등의 몇 가지 정황만으로 IB로 진단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혈청검사와 실험실 검사를 하여 코라이자, 뉴모바이러스감염증, ILT, ND 등 유사질병과 감별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장형 IB를 예방하기 위해선 K2 생독백신을 분무접종이나 음수접종을 합니다. 국내 분리주로 제조했기 때문에 과거의 백신보다는 방어력이 좋아졌으며 접종일령은 5~7일령에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백신접종과 더불어 농장내로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할 차단방역을 병행하여야 하고, 올-인-올-아웃방식의 사양관리를 통해 항상 청결하게 계사를 유지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공 : 반석 가금진료 연구소)

마니커, 무항생제 닭고기 '닭터의 자연' 출시

(주)마니커의 친환경 과학 프로젝트의 결실인 프리미엄 닭고기 '닭터의 자연'이 출시되어, 지난 5월 23일부터 전국 이마트 141개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프리미엄 닭고기 '닭터의 자연'은 2011년 9월 서울대 기술지주회사와 마니커의 기술제휴협약 이후 설립된 합작법인 (주)S&마니커가 탄생시킨 첫 브랜드 제품으로, 서울대가 개발하여 기술 이전한 육계용 유산균제 제조기술이 바탕이 된 무항생제 친환경 제품이다.

(주)S&마니커의 '닭터의 자연'은 정부 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기평)에서 주관하고 연구비를 지원한 '바이오사료첨가제개발사업단'의 연구 성과인 유산균제를 통한 제품 생산을 특징으로 한다. 항균력이 증진된 유산균제는 항생제 대체제로 사용되며, 현재 특허 출원(특허출원 10-2012-0045661) 중이다.

또한 신제품 '닭터의 자연'은 (주)S&마니커의 친환경 닭고기 과학연구소의 1-3-6 에코시스템(친환경

통합관리 검증 및 안심 보장 품질 시스템)을 통과한 상위 10%의 친환경 인증 농가 (SEF FARM)에서 출하한 닭고기만을 선별하여 생산되는 것이 특징이다. SEF 인증을 받은 농가는 축산전공 석박사들의 엄격한 관리 하에 운영된다.

(주)S&마니커 지원철 대표이사는 “서울대의 기술력을 근간으로 생산한 친환경 제품 '닭터의 자연'을 통해, 국내시장 선점뿐만 아니라 일본 및 미국 등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여, 먹거리의 한류를 여는 대표적인 프리미엄 친환경 닭고기 브랜드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닭터의 자연'은 통닭, 볶음탕, 부분육으로 생산되어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 판매되고 있으며, 6월부터는 이마트 에브리원 등으로 판매처가 확대될 예정이다.



단체소식 양계관련단체 업무추진 활동

축산관련 정부부처 인사발령

축산관련 정부부처 내에서 과장급 및 부장급 인사발령이 있었다. 먼저 지난 5월 1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 김종구 과장의 전보가 있었으며, 5월 13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정책과 이상만 과장의 전보에 이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김인철 부장의 승진도 있었다. 5월 21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 양계담당 사무관에 서재호사무관(전 축산정책과)이 인사발령 되었다.



■ 김 종 구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 과장
▲ 68년생 ▲ 영남대학교 미생물학 ▲ 경북대학교 대학원 국제경제 석사
사수료 ▲ 기술고시 33회 ▲ 농림수산식품부 농산경영과, 기술지원과, 식품산업과 사무관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과 서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외식산업과, 지역개발과, 장관비서관, 경영인력과장



■ 이 상 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정책과 과장
▲ 70년생 ▲ 서울대학교 경제학 ▲ 美 보스턴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 농림수산식품부 국제협력과, 유통정책과, 시장과, 장관실, 투자심사, 식품산업과 사무관 ▲ 농림수산식품부 구조정책과 서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맞춤형농정팀장, 정책기획팀장, EU농무관, 국제개발협력과장



■ 김 인 철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부장
▲ 57년생 ▲ 영남대학교 축산학 ▲ 영남대학교 대학원 축산학 석사
▲ 충남대학교 대학원 축산학 박사 ▲ 美 UC Davis 연수 ▲ 국립종축장 대가축과, 중소가축과 연구사 ▲ 국립종축원 종축관리과 연구관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양돈과, 개량기획과 ▲ 국립축산과학원 양돈과 과장



■ 서 재 호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양계담당) 사무관
▲ 65년생 ▲ 전남대학교 낙농학 ▲ 충남대학교 대학원 낙농학 석사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정책과 사무관

이름	농장명	금액(누계,원)	주소
김의겸	산내들농장	115,000(271,000)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신병철		240,000(480,000)	
방지현	유리농장	194,910(734,910)	전북 고창군 흥덕면
송분심		57,760(57,760)	
성화 박은식		178,710(342,600)	
송철호	은진농장	300,000(300,000)	충남 예산군 대술면

(사)대한양계협회



5월 육계분과위원회의 개최

지난 5월 15일 대전에서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홍재)가 개최되었다. 이번 분과위원회에서는 육계표준계약서와 축산계열화 사업에 관한 법률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

육계표준계약서와 축산계열화 사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협회에 서 건의한 주요 내용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육계표준계약서의 경우 계사의 기본 사육시설, 사육자재의 공급과 품질 및 출하과정 등에서 각 협회의 의견과 입장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병아리를 공급함에 있어 분회에서는 난계대 질병에 대한 항체 역가검사 결과를 명시하여 송장을 발급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육계의 출하 시 등외품에 있어 계열사에서 임의로 처분하는 관행을 고치고자 농가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

용을 추가로 요청하였다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최근 정부에서 축산농가 및 계열화사업자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흡사한 표준계약서와 사육자재의 품질 등에 관해 고시할 뜻을 밝힘에 따라 해당 법령에도 항시 문제시되었던 병아리 품질기준에 대해 종계의 법정 전염병, 난계대 질병에 대한 항체 역가검사 결과를 명시토록 하는 법안을 추가 삽입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육계분과위원회에서는 분과내 소위원회 위원을 선출하여 육계산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육계분과위원회 상정에 앞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대형할인매장 수입산 닭고기 사용 저지 운동 지속

개인 닭고기자조금 납입 현황(2013년 4월)

이름	농장명	금액(누계,원)	주소
김이순	만경농장	194,400(581,400)	전북 김제시 만경읍
최은희		726,500(726,500)	전남 해남군 황산면
최 훈	민영농장	109,000(109,000)	경기 연천군 백학면
임병우	임씨양계장	162,000(162,000)	경기 고양시 덕양구
진정수	구구축산농원	160,000(160,000)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서승호	해뜨는농장	100,000(100,000)	경기 화성시 마도면
모인철		93,720(93,720)	전남 무안군 운남면
오종훈		160,000(160,000)	
한민전	호박골농장	92,000(92,000)	충남 홍성군 홍동면
서대원		120,000(120,000)	충남 논산시 광석면
이옥례	해피농장	204,132(405,732)	전남 곡성군 겸면
문한순	진석농장	100,000(100,000)	경기 화성시 향남읍

5월 21일(화), 롯데마트 방문

지난 4월중 진행된 이마트 1인 시위가 극적으로 타결된데 이어 기타 대형매장의 수입닭고기 판매현황을 파악하고 국산닭고기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 21일 본회에서는 대형할인매장의 수입산 닭고기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뜻을 전하기 위해 롯데마트를 방문하였다. 대부분의 대형할인매점에서는 신선육은 국내산을 사용하지만 즉석조리식품이나 냉동식품의 경우 미국산, 태국산 닭고기가 이미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상황이다. 롯데마트 측에서도 닭봉 등 즉석조리식품의 경우는 태국산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전체 닭고기 판매량의 비중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 나타났다. 롯데마트측은 가격경쟁을 위해 저가생산으로 수입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하며 국내산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선 우선 구매단가가 맞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주원료를 공급하는 닭고기 계열사와 판매를 하는 할인매장 양측이 업계에 대해 중간마진을 낮추어 저가 수입산에 대한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국내 최대 규모 대형할인매장인 이마트 측에서도 수입닭고기를 국산 닭고기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러한 전환에 주요 대형할인점의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사)한국계육협회



본회 정병학 회장, MBC 생방송 오늘아침 인터뷰 진행



브라질산 닭에 비해 약 1.5배 더 비싸기 때문에 브라질산 냉동닭을 수입해 닭강정, 닭꼬치, 닭갈비 등으로 만들어 10억여 원을 유통해 부당이

국내산과 브라질산 닭고기 차이점 소개

최근, 브라질산 냉동 닭고기가 국내 산닭고기로 둔갑하여 유통된 사건과 관련해 (사)한국계육협회 정병학 회장이 MBC '생방송 오늘 아침'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지난 5월 9일(목) 오전 8시 30분부터 방송된 MBC의 시사교양프로그램인 '생방송 오늘 아침'에서는 브라질산 냉동 닭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사건이 소개됐다.

방송에서는 비위생적인 조리기구와 그릇,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 등을 사용해 브라질산 냉동 닭을 국내산 닭과 섞어 국내산으로 둔갑한 식료품 창고를 보여줬다.

수입닭을 속여 판 일당은 국내산 닭이

익을 취했다.

방송을 통해 (사)한국계육협회 정병학 회장은 "브라질산 닭과 국내산 닭은 육안으로 구별하기가 상당히 힘들지만, 국내산 닭은 지방이 부드럽고 탄력감이 있다"며 국내산과 브라질산 닭의 차이점을 소개했다.

한편 정 회장은 "앞으로는 식품의 원산지를 속이는 일이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아야 하며 소비자들도 닭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국내산 닭고기를 구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한국토종닭협회



전국 전통시장, 질병 근절 위해 일제소독



산닭유통분과위는 지난 5월 14일과 16일 전국 전통시장 내 토종닭을 일제소독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토종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힘썼다

토종닭 전체 비우고 차단방역에 나서

전통시장 내 질병 청정화를 위해 토종닭 종사자들이 두발 벗고 나섰다.

최근 중국에서 AI로 인한 인체감염과 사망자가 발생하고 북한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였고, 국내에서는 저병원성 AI가 검출됨에 따라 방역관리에 소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사)한국토종닭협회 산닭유통분과위원회는 지난 5월 3일 대구에서 전

국 지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갖고, 전통시장 내 토종닭 일제 소독에 대한 논의를 했다.

이후 협회는 지난 5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전국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토종닭을 모두 비워 일제 소독을 실시했다.

김연수 회장은 "이번 전국 전통시장 일제 소독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며 "최근 토종닭 종사자들이 교육, 자발적인 소독 등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로, 정부는 이에 대한 양성화 조치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정진 상임부회장은 "자발적으로 전통시장 내 토종닭을 비우고 영업을 안하고 일제히 소독을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일제 소독을 계기로 산닭유통분과조직을 강화하고 정부 정책에 신속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통시장에서 토종닭 산닭을 판매하는 것은 예로부터 문화와 전통으로 내려오는 관습이다. 특히 원하는 토종닭을 위생적으로 잡아 바로 구매함으로써 신선하고 맛있는 토종닭 고유의 맛을 즐길 수 있어 많은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에서 산닭을 구매한다. 이러한 산닭 시장은 전체 토종닭 산업에서 약 25~30%를 차지하는 등 꾸준히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농가분과위원회 개최



농가분과위는 최근 토종닭 시세 하락에 따른 토종닭산업의 경기침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함을 공감했다

협회는 지난 5월 13일 대전 유성 소재 만나에서 농가분과위원회의(위원장 신영성)를 개최했다.

분과위는 최근 토종닭 시세 하락에 따른 산업 침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예년과 비교하면 생산량이 많지는 않지만 최근 장기간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과 타 축산물들의 가격하락에 따른 토종닭 대체소비 증가로 시세 하락의 원인을 꼽았다. 특히 지난 2월 말부터 입추량이 증가함에 따라 공급량도 쉽게 줄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자

칫 잘못하면 장기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이에 분과위는 계열사를 통한 대형마트 행사, 농가의 계획 생산, 덤핑 판매 자제 등 업계 전반적인 요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신영성 위원장은 "토종닭 산업은 매 위기 때마다 푹푹 멍쳐서 헤쳐 나왔다"고 강조하며 "농가와 관련 회원들의 소득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사랑의 토종닭 나누기



토종닭협회는 지난 5월 9일 '장애인 사랑나눔의 집'에서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들에게 토종닭고기를 제공하며 온정의 손길을 나눴다

지역 복지 센터에 온정의 손길 나눠

협회는 지난 5월 9일 영등포구 소재 '장애인 사랑나눔의 집'에 토종닭을 후원하며 온정의 손길을 나눴다.

'장애인 사랑나눔의 집'은 지역의 저소득, 중증장애인 등 사회취약 계층에게 무료급식, 목욕, 이발, 푸드뱅크 등 복지 사업을 시행하여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재활시설이다.

닭고기자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사랑의 토종닭 나누기' 행사는 어려운 이웃에게 1고3저 식품인 토종닭고기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상생하는 취지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Today's
맛 있는
닭고기 요리

닭다리 노호박 보양탕

운동량이 많은 닭다리는 육질이 단단하고 영양만점인 부위이며, 황기는 땀이 많이 나는 증상을 완화시켜 주고 원기를 북돋아 준다. 여기에 소화 흡수를 돕는 늙은 호박을 곁들인다면 여름철 보양식으로 제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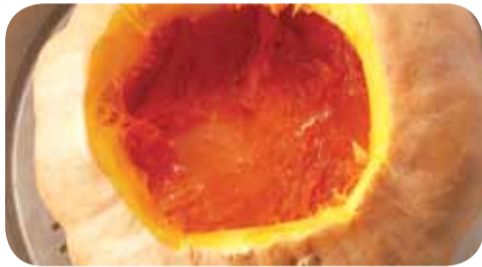


재료 닭다리 10개, 늙은 호박 1개, 밤 3개, 마늘 5쪽, 대추 5개, 꿀 2큰술, 거피들깨가루 1큰술, 소금
약초물 황기 30g, 감초 2g, 물 5컵

Cooking

1. 늙은 호박은 꼭지 쪽을 도려내고 씨를 파낸다.
2. 호박을 찜통에 넣고 살짝 찌낸다. (호박을 찌는 이유는 호박 속에 닭을 편하게 담기 위해서다.)
3. 은근히 삶아 향이 우러나게 끓인 약초 물에 들깨가루와 소금, 꿀을 풀어 쪄 놓은 호박 속에 붓는다.
4. 닭다리와 대추, 마늘, 밤을 호박 속에 담아 찜통에서 찌낸 다음 호박과 닭다리를 곁들여 먹는다.

〈제공 :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안승춘 회장〉



양계
비법전수

물의 중요성과 고온기 급수관리 요령에 대해 알려주세요.



물은 체조직의 60~70%를 차지하며 특히 병아리의 경우 몸의 약 80%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20% 이상 손실하였을 경우 폐사할 수 있다. 육성중인 육계의 체중 1kg 증체에는 약 4ℓ의 물이 소요된다. 그 중 약 75%는 직접 음수로부터 얻고 나머지는 사료로부터 얻으며, 일반적으로 사료섭취량의 약 2배에 달하는 물을 마시나 온도 변화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더위에 약한 닭은 사육온도가 올라갈수록 음수량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며, 6주령 4.4℃일 때에는 125.4ℓ를 섭취하는데 비하여 37.8℃로 온도가 올라갈 경우 573.8ℓ로 4~5배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고온기에 음수량이 증가하면 닭은 연변을 싸게 되고 이로 인해 계분처리량이 더욱 어려워지며 수분조절제 투입량도 증

가하게 된다. 여름철 고온기에는 닭에게 급여하는 물의 이상적인 수온은 10~20℃로써 감압탱크와 파이프에 단열처리를 하고 감압탱크에 얼음을 투여하도록 한다. 또한 물 1ℓ당 비타민 C 0.1g과 사리질산(아스피린) 0.3g을 첨가한다.

〈출처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닭기르기 100문100답'〉

퀴즈 날말맞추기

1		4		5	
2				6	
			7		
3	9				12
		8			
10			11		

◇ 가로풀이

- ② 창포의 잎과 뿌리를 우려 낸 물 단오에 몸을 씻는 데 씀
- ③ 딸의 남편을 이르는 말
- ④ 닭의 바이러스성 전염병의 하나. 이 병에 걸린 닭은 간, 신장, 비장, 난소, 폐 등의 내부 장기에 종양이 생기며, 녹색변을 보이기도 한다
- ⑥ 멀고 가까움
- ⑦ 둘 이상의 후보가 경쟁하는 선거
- ⑧ 선지의 하나. 옥판 선지보다 질이 약간 낮고 조금 큼
- ⑩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암시적으로 또는 본능적으로 미리 느낌
- ⑪ 심에 물감을 섞어 빛깔이 나게 만든 연필

◇ 세로풀이

- ① 창이 없이 환기구 또는 환기장치를 이용하는 닭 사육시설
- ④ 사람의 정신을 홀리는 요사스러운 물건
- ⑤ 의료 시설이 없는 낙도 따위를 돌며 주민을 진찰하거나 치료하는 데 쓰는 배
- ⑦ 나라를 기울일 만큼 아름다운 여자
- ⑨ 잘 어울리지 않아서 일어나는 어색한 느낌
- ⑫ 인물의 악력

48호 정답

문	고	하		문	하
고		하	하		
문		문	하	하	
	하	문		하	
고	문		문	하	하
	문	하	하		고



방문자 등 외부인

SI의심축 신고전화(1588-4060)

- ⇒ 농장출입구에 '방역상 출입금지' 안내문 부착
- ⇒ 발판소독조, 분무소독시설 설치, 운영
- ⇒ 외국인의 가금류농가 출입제한
- ⇒ 동물약품·사료·채혈요원 등 방문자의 사전 약속 및 청결한 의복·신발 착용
- ⇒ 계사 출입 시 깨끗한 방역복·장화를 착용하고 출입문에서 장화 침지 소독

출입차량 ⇒ 모든 차량은 농장 출입구에서 세척 및 소독 실시

농장주, 관리인 등 농장근무자

- ⇒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농장 출입자를 철저히 통제
- ⇒ 계사출입시 발판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생활화
- ⇒ 철새도래지 및 서식지, 가축시장, 부화장, 집하장, 도계장, 사료공장, 분뇨처리장 등의 방문 자제
- ⇒ SI발생국 여행 자제(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등)
-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철저한 소독 및 교육 실시 ⇒ 살충 및 구서(쥐잡기) 실시

AI 차단방역 철저

SI 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차단방역과 주기적 소독 필수